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 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1:12-26

다같이

말씀선포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다음 주일(5/31) 부터 신청하는 분을 중심으로 인원을 제한 하에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3. 큐티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해서 있으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5월 21일부터 종교 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5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예배당 안에서도 유지하고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늦게 허락할 줄 알았던 종교 모임을 이렇게 일찍 허락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태버너클침례교회가 켄터키주지사와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소한 이유는 교회 예배를 금지한 주정부의 행정 명령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 명령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렉 반 타텐호브 판사는 교회 예배를 금지한 주정부의 행정 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런 판결은 켄터키주는 물론이고 연방 모든 주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미국 전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며, 교인들간의 접촉성 인사를 하지 않고, 친교 시간을 갖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현재 예배당에서는 25-35명 정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주일예배를 자원하는 20명이 참석한 것처럼, 미리 신청한 분들을 목장별로 파악해서 허락받은 분만 참석할 수 있으며, 좌석은 표시한 자리에만 앉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구비함은 물론이요, 가능하면 예배 전에 예배실을 소독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0명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려가며 사회적 질서도 유지하되 그보다 더 우선되는 예배드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2,442